

단재 신채호와 벽초 홍명희의 문학과 국(國)

- 실제의 공동체와 상상의 공동체

김 승 환*

- I. 서론 - 중화주의 천하관과 동양주의 세계관에 대한 응전
- II. 단재 신채호의 국(國) 개념
- III. 벽초 홍명희의 국(國) 개념
- IV. 결론 - 국민국가(國民國家) 부재의 국

I. 서론 - 중화주의 천하관과 동양주의 세계관에 대한 응전

조선의 지식인들은 뿌리깊은 중화사상에 침윤되어 있었다. 이것을 흔히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라고 하는데, 소중화주의는 중화적통이 단절된 중국을 대신하여 조선이 중화의 맥을 이어야 한다는 천하관이면서 이데올로기다. 신채호가 보기에 당시 유교를 숭상하던 지배계층은

*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중화주의를 넘어서 존화주의(尊華主義)에 빠져 있었으므로 국가사상 자체가 부재)했다.

중화주의(Sino-Centricism 中華主義)는 중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간주하는 이데올로기이면서 정치경제의 체계였다. 고대 황하문명 이후 중국은 양자강과 황하를 아우르는 지역을 천하의 중심으로 설정했고, 이곳을 문화와 문명이 있으며 도덕과 윤리가 있는 중원(中原)으로 명명했다. 중화주의는 이러한 천하관(天下觀)을 바탕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철학이나 통치이념인 동시에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²⁾이었다.

이 중화주의로 인하여 생겨난 또 다른 담론이 정한론이다.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일본의 천황을 부정하는 한편 일본을 외교

- 1) 백동현, 「신채호와 ‘국(國)’의 재인식」, 『역사와 현실』 29권, 1998년 9월, p.218.
- 2) 중화의 중심인 중원은 천자(天子)가 직접 통치를 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그 바깥은 내번(內蕃), 내번의 바깥을 외번(外蕃), 외번의 바깥을 외夷(外夷)로 분류했다. 중원의 바깥인 내번은 다른 민족이 사는 지역으로 현재 중국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만주, 몽고, 신장, 운남, 귀주 등으로 천자가 관리를 파견하고 세금을 거두는 통치구역이었고, 그 바깥의 외번은 독립된 주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면서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국가로 조선 등이고, 외이는 중국 관할은 아니지만 중화질서에 포함되는 국가 즉 일본, 월남, 동남아 등과 그 밖의 인도나 아랍을 넘어서 서양까지 지칭하는 용어다. 이 중화사상은 중국의 문학작품이나 다른 장르에서도 여러 가지로 반영되었으며 다른 나라도 중국의 천하관을 여러 가지로 묘사해 왔다. 이처럼 중화주의는 예술의 주제이면서 예술을 포함한 문화의 큰 틀이기도 했다.

중국인들은 외이를 남만(南蠻) 북적(北狄) 동이(東夷) 서융(西戎) 등 야만스런 오랑캐들이 사는 곳이라고 불렀다. 고대 중국의 기록에는 현재의 한국을 동이(東夷)라고 지칭했는데 이때의 이(夷)가 바로, 중화사상의 네 번째 동심원인데 중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천하의 변방이었다. 한편 오랑캐라도 중원에 진출한 이후에는 중화화되었다는 역사적 주장과 아울러 고구려를 내번으로 보고 신라·백제를 외번으로 보는 중국인들의 관점 때문에 동북공정과 같은 국가간의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현재의 영토를 구획하려는 것은, 비록 생각일지라도 옳지 않다. 고대나 중세의 과거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은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민국가 시대의 산물이다.

참조 김승환, “동아시아적 담론과 동아시아적 인식”, 『인문학지』 제27집,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3년 12월.

적 상대로 인정하지 않자, 일본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 출신의 궁중무사 사이코 다카모리(西郷隆盛 1827 - 1877)는 정한론을 주창했다. 중국의 속국이면서 중화주의 천하관을 바탕으로 일본을 무시하는 조선을 정벌하여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일본사회는 메이지유신으로 근대적인 군사제도가 생기자 무사들의 급료를 삭감하거나 무사제도를 폐지하자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코 다카모리는 무사들이 할 일을 찾아주고, 또 무사들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하여 정한론(征韓論)을 주창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침략주의 책략은 근대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실행되지 못했다.

1873년을 전후하여 다시 대두한 정한론³⁾은 1867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일본사회의 격동을 반영하고 있고 일본의 근대화와 관계가 있다. 이 정한론은 한국의 시각으로 보면 일본의 침략야욕이지만 일본의 시각으로 보면 중화주의의 해체와 동양 천하질서의 재편이다. 한편 일본은 팽창과 침략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을 독립적인 지위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1876년의 강화도조약을 근거로 조선에서의 우위를 점했던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더욱더 그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한편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조선이 독립적 지위를 가지게 함으로써 객관적 침략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노력했다. 이 결과 조선은 1897년에 천자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독립적인

3) 이처럼 동북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친 정한론은 봉건 다이묘의 몰락과 일본천황제의 강화에 따른 사무라이의 몰락만이 아니라 일본의 근대화, 제국주의화, 군국주의화, 중국의 쇠퇴, 조선의 쇄국주의, 조선의 식민화 등 다층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정한론은 서구의 근대를 동양 삼국인 중국, 한국, 일본이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과제에서 파생된 것이고 탈아론(脫亞論)으로 나가는 일본의 심리적 열등의식과 관계있다. 결국 정한론은 비서구적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과 중화주의 천하관을 고수하면서 봉건체제에 머물렀던 조선의 문제로 환원한다. 한 마디로 정한론은 단순한 침략과 식민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계사 특히 동아시아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

천하관을 인위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조선의 칭제(稱帝)는 1884년 개화파가 주장하고 1897년 수구파가 실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도 무리한 일이며 조선이 자력으로 칭제를 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일본의 책략이 개입했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중화주의 천하관과 동양주의 세계관에 대한 조선인들의 대응은 무엇이었을까? 반식민지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인들은 반봉건(半封建)과 아울러 반제(反帝) 반식민(反植民)을 동시에 실천해야 했다. 그것은 국가상실(國家喪失)⁴⁾이라는 생존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의식적 응전이고, 국가라는 개념에 이 모든 것이 관계된다. 당시 단재 신채호와 벽초 홍명희는 봉건사상의 극복과 중화주의 천하관 그리고 일본의 정한론과 동양주의에 대한 매우 특별한 사유를 한 사상가였다. 이 글은 신채호와 홍명희가 국가 이전의 국(國)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II. 단재 신채호의 국(國) 개념

신채호는 국가를 정신상 국가와 형식상 국가⁵⁾로 나누었다. 이것은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말하는 국가의 이론적 분류가 아니고 신채호 자신이 설정한 국가의 분류로써, 추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한다. 「정신상국가」에서 신채호는 추상적인 정신상의 국가가 있어야 구체적인 형식적 국가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민족(民族)이 독립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생존하는 것이고 그 때 국권이 보존된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끝으로 ‘애국동포(愛國同胞)’에 정신상의 국가 건립을 촉구⁶⁾하고 있다. 한편 「국가를 멸망케 하는 학부」라는 글에서 다음

4)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p.153.

5) 신채호, “精神上國家”, [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29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p.674.

6) 신채호, “精神上國家”, [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29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p.674.

과 같이 쓰고 있다.

국가사상과 국민의무를 논술함이 불가하면 무국무민한 유목 시대적 상태나 논술함이 가한가. 양 피가 이위한인은 무국인이라 국가와 의무를 지함이 불필요하다 함인가. 오호라, 피 기 한국을 멀망게 하는 학부어니 어찌 한인으로 하여금 국가사상과 국민의무를 지게 하리오?)

이 글에서 보듯이 신채호는 선사시대나 고대의 유목 이후의 봉건국을 국가의 시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조선이 아닌 한국(韓國)으로 명시하여 1897년 성립된 대한제국을 국가로 간주했다. 또한 이런 풍전등화의 지경에 국민은 마땅히 국민의 혼을 스스로 일깨워서 국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로 나간다. 단재는 1910년대 국민이라는 어휘를 무수히 많이 사용전해데 ‘국민은 斯國의 民⁸⁾’으로 논 있다. 국가를 가족으로 이해⁹⁾한 단재는 한국인의 국가적 관념이 미약했다는 분석하면서 인민의 국가정신에 의하여 그 국가의 흥망이 결정된다고 주장¹⁰⁾했다. 그러면서 신채호는 고대국가 이래로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국가의 구성원을 국민으로 설정했는데, 이때의 국민은 민족과는 다른 개념이며 범주다. 이 국민은 백성과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봉건중세의 충군애국의 충(忠)을 충국(忠國)으로 보는¹¹⁾ 복고

7) 신채호, “國家를 滅亡케 하는 學部”,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6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p.669.
8) 신채호, “身家國 觀念의 變遷”,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15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p.682.
9) 신채호, “國家는 卽 一家族”,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31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p.642.
10) 신채호, “國家는 卽 一家族”,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31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p.642.
11) 백동현, 「신채호와 ‘국(國)’의 재인식」, 『역사와 현실』 29권, 1998년 9월, p.248.

주의에 근거한다. 이런 관점에서 고조선과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사 연구에 매진하면서 그 역사에 잠재된 풍속, 습관, 법률, 제도 등을 보전하자는 국수(國粹)를 주장¹²⁾하여 민족주의에서 한 걸음 나가 국수주의의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동시에 유교의 도를 강화해야 한다¹³⁾고 믿었던 신채호는 다음과 같이 국민과 민족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정신상 국가라 함은 하늘 위함인가. 왁 그 민족의 독립할 정신, 자유할 정신, 생존할 정신, 국위를 분양할 정신, 국광을 환발할 정신 등을 위함이나.¹⁴⁾

이 문장에서 민족은 국가의 주체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채호는 국가라는 제도의 구성원을 지칭할 때는 국민, 국가의 주체성을 강조할 때는 민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조선이나 백성과 같은 어휘를 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봉건 국가 그 자체의 국가개념이나 백성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신채호는 근대의 시민이 구성하는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를 상정했을까?

신채호는 당시의 다른 선각자들보다 먼저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민족문화를 통한 민족적 일체감을 계몽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신채호는, 국가도 신성한 것¹⁵⁾이며 국문도 신성한 것으로 간주¹⁶⁾하는가 하면 한글이 단군시대부터 존재했다는¹⁷⁾ 오류를 범

12) 신채호, “國粹保全設”,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12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p.645.
13) 백동현, 「신채호와 ‘국(國)’의 재인식」, 『역사와 현실』 29권, 1998년 9월, p.222.
14) 신채호, “精神上國家”, [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29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p.674.
15) 신채호, “神聖한 國”,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4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p.552.
16) 신채호, “國文研究會 委員諸氏에게 勸告함”,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한다. 이처럼 문화를 바탕으로 자기정체성을 규정하고 자기존재를 설정하고자 할 때,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완성된다고 믿었다. 1900년대초는 이런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계몽주의의 시대였거니와, 신채호 역시 문화를 통한 계몽으로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주체를 자각한 조선인의 민족혼을 일깨웠다.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도 강하더니 어찌하여 이제는 이리도 유약하며, 전에는 그렇게도 날래더니 어찌하여 이제는 이리도 둔한가.

아, 슬프다.

용의 종자로서 미꾸라지가 되어버렸고, 범의 종자로서 개로 변해 버렸으며, 신성한 후예들이 일제히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으니, 이 무슨 마귀의 장난이며, 이 무슨 겁운(劫運)의 조화란 말인가.¹⁸⁾

이런 기백과 한탄은 민족의식의 강화로 이어진다. 소설을 계몽의 수단으로 간주했던 신채호는 역사전기소설을 창작하면서, 한국인의 민족혼을 일깨우고 상징적 영웅을 부각시켰다. 한국의 영토를 고구려까지 확장하면서 광개토왕(廣開土王)을 영웅호걸로 상징화시킨 것¹⁹⁾은 한국이라는 국가를 실제의 공동체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민족영웅은 을지문덕과 이순신이 대표적인데, 「을지문덕」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14일, 『단체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p.653.

17) 신채호, “國文의 起源”,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29일, 『단체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p.539.

18) 신채호, 『을지문덕』, 대한광학서포, 룡희이년(1908) 오월, p.23.

19) 신채호, “韓國의 第一豪傑大王”,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25일, 『단체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p.664.

슬프다 우리 한국의 수백년 이래에 외국을 대한 역사를 볼진대 동방에서 한 적은 무리의 도적만 들어와도 전국이 창황 망조하며 서편에서 한마디 꾸지람만 와도 온 조정이 당황 실색하다가 그렇 저렇 구차로이 지내어 부끄러움과 욕이 날로 더하여도 조금도 궤히 여길 줄을 알지 못하니 우리 민족은 천성으로 용렬하고 약하여--.²⁰⁾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분석한 후, 그렇기 때문에 을지문덕과 같은 민족영웅을 중심으로 민족정신을 일깨워야 한다고 썼다. 「을지문덕」을 쓴 의도는 작품 말미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신채호는 서술자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슬프다 이십세기 새 대한에 을지문덕의 탄생이 어찌 그리 더디뇨²¹⁾」라고 한탄한다. 작가와 서술자가 분리되지 않은 것은 작가 신채호 자신의 열망이 상상을 제압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채호는 국민과 국민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고 조선민족과 대한제국의 관계로 보고 있었다. 이 짧은 문장에는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등장한다.

외국 : 주체인 한국의 타자로서의 국가개념

한국 : 1897년 선포된 대한제국(大韓帝國)을 국가개념으로 인식함

동방 : 왜(倭)로 유추되는 일본이라는 국가

서편 : 중화주의 천하관에서의 중국

민족 :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주체

전국 : 한국인의 삶의 공간으로써의 구체적인 실제

조정 : 국가 제도를 주관하는 정부

20) 신채호, 『을지문덕』, 대한광학서포, 룡희이년(1908) 오월, p.23.

21) 신채호, 『을지문덕』, 대한광학서포, 룡희이년(1908) 오월, p.42.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조선/민족과 같은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기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그 주체성을 바탕으로 타자의 국가를 인지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조선인들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중화주의 천하관을 극복한 ‘서편’이라는 어휘에 주목해야 한다. 책봉(冊封)과 조공(租貢)으로 확인되는 조선의 속국(屬國)이라는 지위는 물론이고, 중화사상에 침윤된 조선의 지배계층이 중화에 편입되기 위하여 노력한 것에 비하자면 이런 역사인식은 놀라운 바가 없지 않다.

이 대목에서 보듯이 신채호는 국가를 실제의 공동체(actual community)로 설정했다. 즉, ‘우리’로 표현되는 공동체의식은 전국(全國)과 같은 지리적 개념으로 구체화되며 한국(韓國)²²⁾과 같은 정치적 제도로 재인식된다. 이런 국개념에서 정작 그 국가의 주체인 민족/국민²³⁾의 자각과 정체성은 미약하다. 따라서 당시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전파하는 한편, 동질성과 일체감을 촉발시킨 매개로써 을지문덕과 이순신을 부각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런 신채호의 영웅주의 의식²⁴⁾은

- 22) ‘우리 한국과 지나 간에 서로 교섭한 이래로 제일 크게 싸운 명예가 우리 민족에게도 모두 돌아오더니’
신채호, 『을지문덕』, 대한광학서포, 룡희이년(1908) 9월, p.43.
- 23) 원래 ‘국민(natio)’은 라틴어로 ‘일정한 영토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는데 신성로마제국과 비잔틴의 영토분쟁에서 처음 쓰였다. 인쇄술의 발달로 지식과 문식력(literacy)을 가지게 된 부르주아들은 프롤레타리아와 협력하면서 보수 세력에 도전하여 봉건지배질서를 해체했다. 이것이 1789년 프랑스대혁명으로 상징되는 부르주아 시민혁명이었는데 이를 기점으로 근대사회와 국민국가가 출현하게 되었고,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비서구 국가들은 유럽의 국민국가를 받아들여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근대의 국민은 통치나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통치하는 주체다. 그런데 이 국민국가는 중앙집권과 민족적 정체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며 국경 바깥에 타자가 있다는 배타적 공간개념이 정치경제와 문화예술의 고유성을 증진시킨다. 이 국민국가는 경제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민족어, 민족문화, 민족감정, 민족의식, 민족적 정체성 등을 토대로 하는 문화공동체의 성격이 짙다.
- 24) ‘내 이제야 알겠다. 그 나라의 인민의 용맹하고 나약함과 넉넉하고 용렬함은 전혀 그 나라에 먼저 깨달은 한 두 영웅이 고통하고 권장함을 따라

을지문덕을 회상하는 복고주의를 통해서 국가주의로 나간다.

위기에 대한 자각을 분노로써 촉발하려 하면서, 용이 미꾸라지가 되고 범이 개가 되었다고 비유한다. 또한 두 문장 모두 ‘슬프다’로 시작하여 영탄(詠嘆)의 감각으로 감정을 자극한다. ‘슬프다’라는 발화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서술자 신채호 자신의 슬픔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슬픔으로 동질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문장의 순서는 바뀌었지만 ‘전에는 그렇게도 강하더니’라고 한탄하여 강했던 역사를 회고할 것을 권유한다. 강했던 역사의 역사적 인물이 바로 을지문덕과 이순신이었고 이런 국가정신 양양의 방법이 소설창작 등의 문필활동이었다. 이처럼 신채호는 국가를 실재하는 공동체로 이해했고 봉건적인 국(國)을 넘어서 근대국가를 지향했다. 하지만 봉건적인 국가관으로부터 멀리 나가지는 못했다. 신채호가 국민국가²⁵⁾ 또는 민족국가 자체를 부정하고 초월하려는 이상주의로 나갔다는 것²⁶⁾은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하지만 국가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 역

서 진퇴하는 바이로다’

신채호, 『을지문덕』, 대한광학서포, 룡희이년(1908) 9월, p.43.

- 25) 국민국가(Nation State 國民國家 또는 民族國家)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표어와 ‘국가 위에 다른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압축되며 국민이 구성한 국가이므로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민국가는 웨스트팔렌조약(1648) 이후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서 서구유럽에서 출현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적으로 국민국가는 이성과 개성을 가진 자유시민인 부르주아가 만든 주권 국가로서 다른 국가형태와 마찬가지로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삼요소를 기본으로 한다.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국민을 인종이나 종족이 아닌 민족(nation)으로 보며 백성이나 민중이 아닌 시민(citizen)으로 본다. 또한 국민국가는 국민교육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며 자국역사를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킨다. 가령 단군신화로 민족공동체의식을 상상하도록 한다든가 고구려를 한국의 과거라고 교육하는 식이다. 신채호는 바로 이런 국민국가를 향한 계몽문화운동을 했던 것이고 국가에 대한 신념이 종교적 차원에 이르러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채호의 국가관은 상상의 공동체가 아닌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실제의 공동체(actual community)였다.
- 26) 정운재, “단재 신채호의 국권회복을 향한 사상과 행동”, 『동양정치사상사』 제1권 2호, 2002년 9월, p.134.

시 하나의 국가형태라는 점에서 신채호의 후기 국가인식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연속성이 있다. 따라서 신채호의 무정부주의는 근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제에 항거하는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Ⅲ. 벽초 홍명희의 국(國) 개념

홍명희는 1910년 경술국치 때, '나라가 망했는데 공부는 해서 무엇하느냐'라면서 학업을 중단했다. 금산군수였던 부친 홍범식이 경술국치에 자결한 후, '나라가 망하고 집이 망하고 또 내 자신이 망하였으니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죽는 것이 가장 상책일 줄 믿으면서도 생목숨을 끊을 용기가 없었다. 죽지 못하여 살려고 하니 고향이 싫고 고국이 싫었다'²⁷⁾라고 썼다. 이처럼 홍명희는 국가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공부, 즉 지식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은 사대부 지배계층의 세계관이기도 하지만, 백성 홍명희와 나라 조선의 관계설정이기도 하다. 사대부 집안이면서 부친 홍범식이 자결하여 국치(國恥)에 항의한 그 정신으로 귀국을 했다. 이런 날카로운 현실인식은 홍명희가 자신과 국가의 문제를 어떻게 설정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입격정」은 1928년 연재를 시작하여 1938년까지 창작된 역사소설이다. 끝내 마무리를 못했지만 문학성이나 완결성에서 소설사적 의미를 가진 대작이며 가작이다. 이 작품은 소설사나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한국사나 한국사회운동사적으로도 중요하다. 그것은 문학작품이 작품을 넘어서는 시대적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다. 홍명희는 멸망한 국가 조선을 대신할 국가개념이 필요했다. 신채호가 실제의 공동체(actual community)의 관점에서 국가를 전망했다면 홍명희는 상

27) 홍명희, “내가 겪은 합방 당시”, 『서울신문』, 1946년 8월 27일.

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의 관점에서 국가를 전망하고 있었다.

베네딕트 앤더슨(B. Anderson 1936 -)은 근대의 국민국가나 민족은 현실 속에 있는 실제의 공동체(actual communities)가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상상의 공동체라고 설명한다. 앤더슨에 따르면 아무리 작은 나라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실제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상상을 통하여 자기 민족/국민을 인식하는 한편 국경 바깥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로 타자의 타자가 자기 국민/민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상상지리(imagined geographies) 즉, 상상의 공간 지리적 인식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족이나 국민과 같은 상상의 공동체는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을 거친 서유럽에서 태동했다. 부르주아 즉 시민들은 19세기에 봉건제도와 기독교 중심주의를 해체하면서 합리주의와 자본주의를 토대로 국민국가(nation state)를 만들었다. 이 국민국가의 주체가 바로 민족이고 그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이 민족주의다. 민족과 민족국가가 근대의 산물이라는 앤더슨의 이론²⁸⁾은 민족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으며 그야말로 상상의 산물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여기서 인쇄자본주의(Print Capitalism)라는 개념이 성립하는데 인쇄자본주의란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결합한 지식산업 또는 문화자본을 의미한다. 특히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대량생산을 원리로

28) 앤더슨에 따르면 민족적 일체감을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事實)보다도 신화나 소설과 같은 상상의 허구가 더 적합(invented narratives than real stories)하다. 왜냐하면 근대사회에서는 라틴어나 한자와 같이 공통문어[script language]가 아닌 자기 언어로 상상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어인 민족어 가령, 한자가 아닌 한국어 그리고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가 신성한 언어(sacred language)로 격상되었으며 그 신성한 언어로 무엇이든 상상을 하게 하는 문학이야말로 근대국가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와 언어는 상상의 공동체론의 핵심개념이면서 실제의 공동체에서도 필요한 문화적 동질성(cultural homogeneity)의 토대다.

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상징할 뿐 아니라 지식의 보급과 문식력(literacy)의 증진을 가능케 했다. 그런 인쇄술을 통하여 방언이었던 지역어가 민족에게 공유되면서 국민의 문화적 통일(cultural unification)을 이루었다. 독자인 국민은 소설이나 신화와 같이 상상된 이야기를 읽고 이를 통하여 동질성을 확인하는 한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계몽주의와 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봉건체제를 전복시키고 성립된 것이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과 국민²⁹⁾이고 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토대로 한 것이 민족정신 또는 민족문화다.

상상의 공동체는 실제의 공동체와 등가의 개념이다. 하지만 두 개념이 대척적인 반대개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스 콘은 민족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실재하는 공동체로 규정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정된 것이 아닌 민족(nation)은 인종, 문화, 언어, 영토, 정치, 경제, 역사, 관습, 전통, 종교 등에 의하여 실재하는 삶의 형식이다. 강영주가 「임격정」을 ‘풍속의 탁월한 재현³⁰⁾과 세태의 다양한 묘사라고 한 것 역시 역사적 회상으로써의 상상의 공동체와 한국인의 풍속세태라는 실제적 공동체를 동시 포착하는 창작의 방법이라는 뜻이다. 반면 앤더슨은 근대 자본주의에서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는 근대 민족의 형성과 관계하는 이론으로, 상상을 통하여 민족을 구성한다는 학설이다. 앤더슨에 의하면 근대 민족의 형성에 기여한 것은 인쇄와 언어다. 국민국가의 문화적 주체가 민족³¹⁾이라는 앤더슨의 관점은 홍명희와 같은 식민지 지식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관점이다. 역설적이지만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론에서는 민

29)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 Verso, 2003), p.6.

30) 강영주, 「백초 홍명희와 「임격정」」, 『백초 홍명희와 임격정』, 사계절, 2005, p.57.

31)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ed. (London and New York : Verso, 1991), pp.5-7.

족의 정신이나 사상과 감정이 중요하다. 즉, 한스 콘의 실제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에서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중요하지만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론에서는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힘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언어예술인 문학은 국가건설과 민족형성의 중심에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한글은 민족을 형성하는 매개체이면서 조선인들의 정신을 통합하는 구심점이었다. 식민지 시대의 조선어운동은 언어민족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다. 언어민족주의를 통하여 민족이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형성되었다는 이 관점은 민족의 형성이라는 문제로 환원하여 물어야 한다. 한마디로 상상을 통하여 민족을 형성하는가 아니면 실재하는 민족을 상상하여 강화하는가의 문제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실재하던 민족이 일제식민지로 인하여 토대를 상실했으므로, 민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써의 상상의 공동체론이 필요했다. ‘광범한 각층의 인물을 독자로 한다³²⁾는 홍명희의 발언은 신문연재소설으로써의 일반적인 원리를 피력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민족공동체를 상상하고 상징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조선에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로 인하여 민족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홍명희가 「임격정」에 의식/무의식적으로 담아놓은 민족주의적인 장치들을 제임슨의 개념으로 보자면, 제3세계 문화생산자들은 반드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담게 된다는 것³³⁾에 해당한다.

한 민족은 언어, 삶의 공동경험, 영토, 인종 등을 바탕으로 실재한다는 것은 실제의 공동체다. 인종공동체나 종교공동체 또는 전쟁수행 주체로서의 공동체 등 실재하는 공동체와 달리 상상의 공동체는 공동의 상상으로 구성되는 민족이다. 여기서 상상이란 근거가 없이 마음대로

32) 「삼천리」 1호, 1929년 6월, p.27.

33) Fredric Jameson,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15 (Fall 1986), p.71.

상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경험과 공동의 의식을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양진오는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라는 어휘를 피하고 ‘민족을 상상하는 방식’³⁴⁾이라고 쓰고 있다. 양진오가 말한 ‘방식’은 홍명희의 텍스트 구성과 서술방법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사구성의 원리 이전에 민족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본질적인 것, 즉 언어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담론을 소설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인쇄와 언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문화를 통한 민족주의의 형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당시 식민지 조선은 민족주의가 팽배해 있었다. 그런데 민족의식이 강한 것과 민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다르다. 조선인들의 강렬한 민족의식은 강력한 식민지배로 인하여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당시 소멸되는 민족적 동질성과 약화되는 민족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었다. 무장투쟁을 통한 민족국가의 회복, 외교론을 통한 국가건설, 준비론을 통한 민족해방, 자치론을 통한 민족유지 등 많은 방법이 있었고 상상의 공동체도 그 중의 한 방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임격정」은 상상과 발견을 통한 민족담론의 형성’³⁵⁾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안된 것이 바로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의식이다. 일본이라는 타자를 통하여 조선이라는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상상의 공동체다. 이런 점에서 상상의 공동체는 실제의 공동체와 대립 대척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완 협력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 상상의 공동체와 심상지리를 연결한 대목이 양주 출신 임격정이 백두산에 가서 운흥이를 만난다는 이야기와 제주도 행차 이야기다. 제주도는 강토의 최남단이다. 다음 대목에 표현된 것과 같이 임격정이 제주를 가게 된 것은 불필요한 것을 표현함으로써 공간으로써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려는 벽초의 공간묘사

34) 양진오, “「임격정」 연구 - 민족을 상상하는 방식에 관하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79호, 2003. 3, p.463.
 35) 양진오, “「임격정」 연구 - 민족을 상상하는 방식에 관하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79호, 2003. 3, p.485.

서사전략이라고 해야 한다. 국민국가의 공간구성을 인물의 여행으로 처리한 셈이다.

제주 수로가 멀기도 하거니와 풍량이 험하여서 복선(覆船)이 되기 쉽건마는, 세 사람의 탄 배는 두룽박 까닭으로 복선될 염려가 없었다. 배 속에서 몇 밤을 지내고 어느날 아침에 조천관 포구에 배를 대게 되었다. 대사와 껍정이가 제주에 내린 뒤에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하였다.³⁶⁾

이처럼 제주도와 백두산은 벽초의 상상으로 설정된 공간이다. 이처럼 미완의 국민국가 영토를 중단하고 횡단하는 것은 국민국가 기획의 소설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양보경이 지적한 것처럼 ‘작가의 의도적인 구성에 의한 배치’³⁷⁾라고 해야 한다. 이것을 제임슨식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창작의 의도를 통하여 식민지 조선인들이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³⁸⁾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문화혁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 홍명희의 한계도 놓여 있다. 즉, 홍명희는 국가회복을 위한 무장투쟁이나 직접혁명을 할 수는 없었다. 상상의 공동체로 민족적 일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회적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현실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하지만 사대부 양반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홍명희는 신체호기 민중직접혁명과 투쟁으로 나간 것과 달리 간접적인 문화혁명의 영역에서 비타협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홍명희의 「임격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당대 표준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홍명희는 충청도 괴산사람이다. 그런데 작품에는 충

36) 홍명희, 『임격정』, 사계절판 2권, 피장편, 1996년 3월, p.328.
 37) 양보경, “「임격정」의 지리학적 고찰”, 『벽초 홍명희와 임격정』, 사계절, 2005, p.322.
 38) Fredric Jameson,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15 (Fall 1986), p.78.

청도 방언은 거의 없다. 표준어 사용은 그 자체로 알레고리는 아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당대 표준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민족공동체로서의 언어적 동질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홍명희의 의도가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표준어 창작은 당시 고양되었던 언어민족주의 및 조선어운동과 맥이 닿아 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된 것은 1933년이다. 1930년대의 민족어 운동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서 민족적 일체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독립운동의 방편이었다. 일제가 조선어학회 사건을 빌미삼아서 한글운동을 탄압했던 것도 이것이 민족해방의 방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김윤식은 부의식 상실의 시대에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으로써의 조선어를 상징했다. 그러니까 조선어가 상징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어는 일본어라는 절대적 타자와 대립하고 있었다. 한자문화권으로부터 자립하여 겨우 자기 영역을 구축한 한글의 운명은 식민지로 인하여 종전동화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자기 언어인 조선어의 상실은 곧 자기 민족인 조선인의 소멸을 뜻한다. 따라서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 즉 내용은 조선어 사용이라는 형식을 채택하도록 만든다. 여기서 제임슨이 말한 것처럼 자기 언어와 다른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³⁹⁾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조선어를 통한 동지적 관계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홍명희의 경우에는 표현형식인 조선 표준어 사용은 곧 민족해방을 열망하는 알레고리⁴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역어인 충청도 방언을 사용하기보다는 표준어를 사용한다든가 '시대의 만화경'⁴¹⁾을 그린다든가 하는 것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역사의 공동경험을 일깨워 실제하는 민족공동체를 설정하기 위

39) Fredric Jameson,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15 (Fall 1986), p.82.

40) 김승환, "홍명희의 창작방법으로서의 민족적 알레고리", 『한국현대문학연구』 27, 한국현대문학학회, 2009년 4월, p.161.

41) 강진호, "역사소설과 「임격정」", 『민족문학사 강좌』 하, 창작과비평사, 1996, p.121.

한 방법이였다.

조선과 같은 식민지에서의 표준어 창작과 일본과 같은 식민본국에서의 표준어 창작은 그 의미가 다르다. 식민지 조선에서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를 통한 민족주의 의식의 강화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언어를 통한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도출된다. 이에 대해서 신용하는 어문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쓰지만⁴²⁾ 한글이 저항으로써의 민족주의를 강화했다는 점과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감안해 보면 언어민족주의가 타당하다. 그런데 홍명희가 「임격정」을 쓰던 1930년대에는 언어의 통일성과 저항의 수단으로써 언어민족주의가 발전했던 시기였다.⁴³⁾ 구한말 주시경의 애국계몽운동을 계승한 언어민족주의자들은 언어를 통하여 국가와 민족을 재생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언어민족주의의 반대편에 언어제국주의자들이 있었다. 언어제국주의와 문화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제임슨이 말하는 '정치적 전투행위를 하는 전사'⁴⁴⁾에 해당한다.

화요회(火曜會)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자라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홍명희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언어를 보았으리라는 것은 좌우합작의 신간회 운동으로 입증 가능하다. 1920년대 중반, 신간회 운동에 헌신한 홍명희는 민족통일전선이라는 절대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민족문제를 최우선했다. 애석하게도 좌우합작이라는 민족통일전선은 붕괴되었지만 최종의 목표인 민족공동체라는 절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따라서 「임격정」을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 홍명희는 반드시 소설을 창작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⁴⁵⁾으나 '민족적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선어와 조선사에 대

42) 신용하, "주시경의 애국계몽사상", 『한국사회학연구』 1집,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1977.

43) 조성윤, "외술과 언어민족주의", 『현상과 인식』, 2000, p.14.

44) Fredric Jameson.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15 (Fall 1986), p.75.

45) 강영주, 『벽초 홍명희 평전』, 사계절, 2004, p.165.

한⁴⁶⁾ 관심을 반영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조선어 창작은 일본어 창작이라는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⁴⁷⁾ 또는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일본어 창작은 문화제국주의의 강압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문화적 응전방식으로 홍명희가 언어민족주의의 태도를 가졌음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제임슨의 용어로 문화적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⁴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글 표준어 사용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언어민족주의라는 강고한 의식을 바탕으로 선택된 표현형식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언어적 민족주의 의식은 거꾸로 근대적 국민국가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IV. 결론 - 국민국가(國民國家) 부재의 국

필자는 지금까지 단재 신채호와 벽초 홍명희의 국(國) 개념을 살펴 보았다. 국가나 나라가 아닌 국(國) 개념으로 살펴본 것은, 국이 봉건 국가와 근대국가를 아우르는 개념일 뿐 아니라 민(民)이나 백성(百姓) 이전의 체제나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세의 중화주의 천하관과 일본의 정한론 및 동양주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그 의식이 국(國)이라는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고 본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00년 전후의 조선은 유교의 주자주의와 성리학을 근본으로 하는 봉건국가로부터 근대의 국민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역사적 단계에 놓여 있었다. 반봉건 근대화라는 지향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신채호와 홍명희는 국가, 국민, 민족에 대한 개념을 나름대로 정립하면

46) 강영주, 『벽초 홍명희 평전』, 사계절, 2004, p.166.

47) Fredric Jameson,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15 (Fall 1986), p.82.

48) Fredric Jameson,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15 (Fall 1986), p.83.

서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다.

둘째, 조선의 국민국가 지향성은 동아시아의 세계관이었던 중화주의(中華主義) 천하질서와 관계가 있다. 외번(外蕃)이었던 조선은 끊임없이 내번(內蕃)과는 달랐으니 끊임없이 중화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중세의 조선국이라는 국가개념은 중화주의 천하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한론(征韓論)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조선지배 책략은 동양주의라는 세계관으로 수렴되었는데,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것을 극복하려는 치열한 정신적 노력을 기울였다.

셋째, 단재 신채호의 국가관은 탈중화주의적이었으나 근대 국민국가에는 이르지 못했다. 몰락 양반계급의 폐족(廢族)이었던 단재 신채호는 진보적인 국민국가 의식을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민족을 형성해야 한다는 계몽주의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조선어와 같은 민족문화(民族文化)를 계몽하는 일을 우선했다. 그의 사상은 일생을 일관하여 1910년대 형성된 반봉건반제국의 국가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근대 국민국가에는 이르지 못했다. 1923년의 「조선혁명선언」으로 상징되는 민중직접혁명론 또한 민족주의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신채호의 민족주의나 민족문화 의식은 민족국가 또는 국민국가를 담보하지는 못했다.

넷째, 신채호의 실제의 공동체(actual community)에 근거하여 쓴 「을지문덕」은 민족적 일체감을 계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창작된 작품으로, 국가의 토대가 되는 민족형성을 목표로 한다. 민족적 정체성과 일체감의 옹호한 기상을 계몽하고자 하는 신채호의 노력은 고구려사에 대한 재인식을 하도록 했으나, 동시에 근대적 국가관에 이르는 전망은 차단시켰다. 반면 홍명희의 「임격정」은 상상의 공동체로써의 민족개념을 작품화한 것이었다.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써의 국가는 실제의 공동체로써의 국가보다는 미약한 것이었지만 국민국가에 좀더 다가 있었다.

다섯째, 벽초 홍명희의 국가관은 반봉건, 탈중화, 자주독립의 의식에

이르렀다. 하지만 근대 국민국가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대부 별열(闕) 가문 출신의 홍명희는 일본 유학을 통해서 일본식의 근대를 체험했고 의회제도나 여러 가지 근대적인 제도를 목도했으나 일본의 조선 지배라는 식민주의를 투쟁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점진적 독립의 사상을 가지고, 조선어의 확립을 통한 문화운동에 치중했기 때문에 근대적 국가개념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논문접수:2010.11.29, 심사시작:2010.12.02, 심사완료:2010.12.8]

주제어 : 중화주의 천하관, 상상의 공동체, 실제의 공동체, 국민 국가, 민족적 정체성

<참고 문헌>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 Verso, 2003).

Jameson, Fredric,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15 (Fall 1986).

「삼천리」 1호, 1929년 6월.

강영주, 「벽초 홍명희와 「임격정」」, 『벽초 홍명희와 임격정』, 사계절, 2005.

강영주, 『벽초 홍명희 평전』, 사계절, 2004.

강진호, “역사소설과 「임격정」”, 『민족문학사 강좌』 하, 창작과비평사, 1996.

김승환, “동아시아적 담론과 동아시아적 인식”, 『인문학지』 제27집,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3년 12월.

김승환, “홍명희의 창작방법으로서의 민족적 알레고리”, 『한국현대문학연구』 27, 한국현대문학학회, 2009년 4월.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백동현, 「신채호와 ‘국(國)’의 재인식」, 『역사와 현실』 29권, 1998년 9월.

신용하, “주시경의 애국계몽사상”, 『한국사회학연구』 1집,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1977.

신채호, “身家國 觀念의 變遷”,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15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신채호, “國家는 卽 一家族”,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31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신채호, “國家를 滅亡케 하는 學部”,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6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신채호, “國文研究會 委員諸氏에게 勸告함”,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14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신채호, “國文의 起源”,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29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신채호, “國粹保全設”,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12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 신채호, “神聖한 國”,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4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 신채호, “韓國의 第一豪傑大王”,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25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 신채호, 『을지문덕』, 대한광학서포, 룡희이년(1908) 오월.
- 양보경, “「임격정」의 지리학적 고찰”, 『벽초 홍명희와 임격정』, 사계철, 2005.
- 양진오, “「임격정」 연구 - 민족을 상상하는 방식에 관하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79호, 2003. 3.
- 정윤재, “단재 신채호의 국권회복을 향한 사상과 행동”, 『동양정치사상사』 제1권 2호, 2002년 9월.
- 조성윤, “외술과 언어민족주의”, 『현상과 인식』, 2000.
- 홍명희, “내가 겪은 함방 당시”, 『서울신문』, 1946년 8월 27일.
- 홍명희, 『임격정』, 사계절판 2권, 피장편, 1996년 3월.

<ABSTRACT>

Nation and Literature of SIN Chaeho and HONG Myunghee

Kim, Seung-Hwan

Around in 1900, Joseon had experienced several changes of its nation system. It had changed from a feudalistic state in the medieval area to an empire, falling into a colonized state through anti-colonialism against Japan. In this process, Shin Chae-Ho and Hong Myung-Hee had developed the concepts of a state, national identity, a member of a state, a people, and Minjok (nation), aiming to build a modern nation state.

On the other hand, Sino-centralism order had been dismantled, and Japanese modern Orientalism had come to rise. The Korean Empire changed from Joseon had ostensibly been independent from Sino-centralism. However, Joseon had become colonized by Japan and ideologically joined into Japanese Orientalism. In this process, it was urgently necessary to establish a concept of a state and define national identity. Under the circumstances, Shin Chae-Ho and Hong Myung-Hee are significant figures who had taken a deep look at the issues of a state and MinJok (nation). In particular, their thoughts about a state had become a critical issue in their entire lives.

By writing Ulchi Mundok on the basis of an actual community, Shin Chae-Ho intended to realize national unity and national

formation. Such an effort made our ancient history of Joseon recognized, and his obsession with nationalism caused him to be blind to forecast the view of modern state. However, Shin Chae-Ho had no intention of achieving monarch-centered feudalistic nation, going into anarchism in terms of the fact that he denied the concept of governing and governed.

However, Hong Myung-Hee had designed a new national system by describing the concept of Minjok (nation) through an imagined community in his novel, LimGeojeong. The novel includes features of national allegories, imaginarily reconstructing a loss of a nation. A state as an imagined community Hong Myung-hee aimed for was different from a state as an actual community. His state was much closer to a modern national state.

Key Words: Sino-centralism, Imagined community, Actual community, Nation state, National identity